

■ 주요 기사

○ 바른정당 칼퇴근 공약 (2건)

조선	"퇴근 후 SNS 통한 '돌발 노동' 막고... 야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해야"
동아	유승민 2호 공약은 '칼퇴근 보장'

○ 일가정 양립 정책 관련 (2건)

동아	'워킹맘 과로사' 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
경향	[맘고리즘을 넘어서]⑤양성 평등과 '법대로' 작동되는 정책...맘고리즘 끊을 절대조건

○ 기업 고용 및 투자 전망 (1건)

매경	"올해 경영키워드는 구조조정"
----	----------------------------------

■ 주요 칼럼 · 사설

○ 모성 보호 관련 (1건)

동아	[정성희의 사회탐구]'인구절벽 원년'에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	---

○ 기후변화 정책 관련 (1건)

매경	[세상읽기] 기후의 위협, 정책의 위협
----	---------------------------------------

○ 성과연봉제 관련 (1건)

한겨레	[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퇴근 후 SNS 통한 '돌발 노동' 막고... 야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해야" 4면
		내용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일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에 제한을 뒤 야근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표했다. 칼퇴근법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12년 대선 출마의 캐치프레이즈로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건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다
조선	고용 복지	제목	성평등 보장되면 고학력 여성이 출산율 더 높아 12면
		내용	'고학력에 경제력을 갖춘 여성은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분석이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해 미국·영국·덴마크·노르웨이·한국·일본 등 21국 20~45세 여성들의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동아	노동	제목	유승민 2호 공약은 '칼퇴근 보장' A5면
		내용	유 의원은 1일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칼퇴근(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 노동'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 장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복지	제목	'워킹맘 과로사' 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 A12면
		내용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출근을 전면 금지한다. 임산부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모성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아	고용 복지	제목	[정성희의 사회탐구]'인구절벽 원년'에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A31면
		내용	육아휴직 뒤 복귀한 워킹맘이 쓰러지는 판인데 공약만 그럴 듯하다고 해서 여자들이 표도 주고 아이도 낳아줄 건가
매경	노동	제목	"올해 경영키워드는 구조조정" 13면
		내용	1일 매일경제신문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올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6%인 1명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줄이겠다는 응답은 투자와 고용이 각각 39.7%와 44.3%에 달했다
매경	환경	제목	[세상읽기] 기후의 위협, 정책의 위협 35면
		내용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화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면 당장은 경제적 이익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온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여 기후변화를 점차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검증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27면
		내용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여러 박근혜표 정책들이 민낯을 드러내고 이미 수명을 다했다. 노동개혁 역시 노사의 공감대와 국민적 신뢰속에서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새삼 확인
경향	노동	제목	허리통증, 차별 겪어도 노조 있으면 덜 발생 11면
		내용	심리적 요인에 따른 허리통증 발생률이 직장의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등은 영국 의학전문지 '소셜사이언스 앤드 메디슨'에 낸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 복지	제목	[맘고리즘을 넘어서]⑤양성 평등과 '법대로' 작동되는 정책...맘고리즘 끊을 절대조건 8면
		내용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바닥.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불행한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맘고리즘을 넘어서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고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일과 성과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를 넘어서야 한다

<끝>